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자녀 10대 때부터 노후 챙긴다

소득 없어도 부모가 대신 가입...20~50대 감소 속 10대 유일 증가 공적연금 소득 기준 강화·건보료 부담에 자발적 가입자 감소 전환

불안한 노후 탓에 자녀를 국민연금에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시키려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광주·전남 18~19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8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6%(43명)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원해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

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 그 대상이다. 10대 임의가입자의 경우 부모들이 직업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국민연금을 가입해주는 사례가 많다. 광주·전남 10대(18~19세) 임의가입자는 2018년 113명→2019년 166명→2020년 212명→2021년 341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10대 임의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광주·전남 임의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했지만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와 대조적이다. 임의가입자는 지난 2018년 1만7267명에서

2019년 1만72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 19가 국내 확산한 이후 1만8494명(2020년), 2만1267명(지난해) 등 2년 연속 증가해왔다. 하지만 올해 임의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만940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6%(~721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감소율이 9.8%(1785명→1610명)로 가장 컸고, 40대 5.8%(5981명→5635명), 50대 2.2%(1만770명→1만538명) 순으로 감소가 심했다. 20대 임의가입자는 0.9%(1249명→123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른 연령대가 올해 들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10대 임의가입자만 홀로 증가 추세인 건 '자녀의 연금을 좀 늘려줘야겠다'는 부모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광주본부 관계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자녀를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시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 연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방법의 하

나'라며 "일단 가입하고 납부 유예를 해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줬다가 나중에 자녀가 추후납부로 채우도록 하는 '자녀 자산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 9만원을 내는데,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납부액을 늘릴 수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을 일찍 시작할 때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공적연금 소득 기준 강화 등 영향으로 다른 연령대에서는 자발적 가입이 감소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 강화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기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노후를 대비해 국민

연금에 좀 더 오래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던 자발적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와 비슷한 유형인 만 60세 이상 광주·전남 임의계속가입자도 지난해 정점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300명 넘게 감소했다. 올해 9월 말 광주·전남 임의계속가입자는 4만 637명으로, 지난해 말(4만2988명)보다 5.5%(~2351명) 감소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만 60세 미만)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동지 팔죽으로 액운 날려요

일년 중 가장 긴 밤 동안 액운을 막기 위해 팔죽을 먹는 '동지'(22일)를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상무팔죽 방문객들이 동지 팔죽을 먹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유·스퀘어, MZ세대 '문화체험 공간' 자리매김

광주·전남 학생 단체 방문 증가

광주 유·스퀘어를 찾는 광주·전남지역 단체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98명, 7월 85명, 8월 22명, 9월 90명 수준이었던 학생 단체 방문이 10월 들어 245명으로 증가하더니, 11월에는 315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달에도 지난 15일까지 341명의 학생들이 방문하는 등 단체 학생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유학년제 시행, 문화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지역 초·중·고교의 단체 방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게 금호고속의 설명이다.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오픈한 대학로 인기 연극 '내에게로 또다시'는 물론, 블루버스터 대작으로 꼽히는 '아바타2' 개봉이 단체 방문객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실제 최근 전남외고와 곡성중 학생 등 총 200여명은 유·스퀘어를 찾아 단체로 식사 후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기도 했다. 유·스퀘어는 '애슬리', '셰프의 초밥' 등 단체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들이 많아 단체 인원 방문 시 식사를 비롯해 독서와 영화, 전시, 공연관람 등 문화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올해 초 고객맞이를 위해 뉴욕스타일의 스테이크 전문점 '아너티킨', 홈인테리어 전문점 '모던하우스' 등을 입점시켰던 유·스퀘어는 최근 '영풍문고'를 리모델링하고 '광주은행'을 확장 이전시키며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한편, 유·스퀘어는 금호갤러리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유행회 '마음으로 그린 풍경', 동행 '갈이가기' 등 전시회를 연다. 또 2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조선대 한국화 단체인' 등 방문객들을 위한 무료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사랑기부금 2억3000만원 전달

카드 이용금 일부 기부

광주은행이 '광주·전남 애(愛) 사랑카드' 이용으로 마련한 기부금 2억3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이 19일 광주시청을 찾아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2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달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박철홍 광주사회

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애사랑카드'는 지난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역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총 13억9000만원을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광주·전남애사랑카드(일반·플래티늄·아너스) 이용금액 0.5%, 광주·전남애기업사랑카드(일반·아너스) 이용금액 0.1%, 광주·전남애사랑 아너스

V2 카드 이용금액 0.2%가 지역에 기부되는 방식이다. 또 이용객에게는 주요 생활·편의업종에서 최대 1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아너스 V2 카드에는 무료 공연 관람, 항공 마일리지 전환, 마스터카드 월드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애사랑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고, 동시에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고객이 있었기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가족친화기업 인증 선정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인증'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를 비롯해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7년 가족친화기업인증 최초 선정 이후 유효기간 재연장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1월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진흥원은 그동안 '가족사랑 정시퇴근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출산·육아휴직 지원' '난임 치료 휴가지원'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시행해 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2.17 (-7.85)
↓ 코스닥	717.22 (-0.19)
↑ 금리(국고채 3년)	3.545 (+0.006)
↓ 환율(USD)	1302.90 (-2.50)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